

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

대전경찰청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‘시민 체감형 치안정책’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한달 간(3.6.~4.5.)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.

그간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분야(16건)·사회적약자 분야(12건)·범죄예방 분야(12건) 등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, 각 기능별로 개선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.

※ 시민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점검·확인 → 보완 예정

앞으로도 대전경찰은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이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① 교통안전 분야(16건)

【 I.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. 】

- ① 야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 LED투광기 설치 확대 요청
⇒ 대전시와 협업하여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확대 예정
(현재 투광기·조명탑 689기 설치, 금년 70기·4.5억 예정)
- ② 보행자가 도로 쪽으로 서있을 경우 신호기에서 ‘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하세요’와 같은 멘트 송출 요청
⇒ 대전시와 협업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확대 예정(현재 264대 설치)
- ③ 주요 골목길에 볼록거울 설치 확대 요청(대덕구 덕암동 삼부마을@ 앞 3가 등)
⇒ 도로반사경 설치(대덕구청 통보)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추가 파악 확대 예정
- ④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(원촌교→대화동 방향 우회전 시 횡단보도용 방지턱 설치 등)
⇒ 3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 처리 예정(7월)
- ⑤ 차량 신호기 파란불 꺼짐 숫자 안내로 황색불 진입 주행 줄일 수 있도록 개선 제언
⇒ 기존 시민제안이 있었으나, 남은 신호시간을 보고 차량운전자가 오히려 과속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도입 불가

【Ⅱ. 교통정리 및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.】

- ① 출퇴근 시간에 승어리샘R·월드컵R 등 주요 교차로 꼬리물기 심각, 교통정리 및 단속 요청
⇒ 매일 출퇴근시간 주요 교차로 67개소에 교통경찰 등 189명 배치 교통관리 및 꼬리물기 단속 중
- ② 먹자골목 주변에 불시·수시 음주단속 요청
⇒ 4. 12부터 스쿨존, 유원지 등 주·야간 불문 주 3회 이상 일제 단속 중
- ③ 배달오토바이의 인도주행·신호위반·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강력 단속 요청
⇒ 상·하반기 집중 단속기간 운영, 주요사고 유발 행위 집중 단속 중이며 향후 번호판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추진
- ④ 건널목 근처,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요청(둔산동 학원가, 테크노밸리 공단지역 등)
⇒ 지자체에 불법주차 적극 단속요청 및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이 현장 계도·단속 중

【Ⅲ. 신호체계 및 속도제한 개선을 하였습니다.】

- ① 속도단속 지점 이전부터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신호체계 개선 필요
⇒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사전예고 표지 점검 및 보강
- ② 원내동 롯데마트 앞 신호 연동 필요(꼬리물기로 인해 차량 진입 난항)
⇒ 롯데마트 인근 진잠4가 꼬리물기 예방 위해 교통관리 및 옐로우존 추가 설치 예정
- ③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상시 정체구간을 파악, 탄력적 신호체계 운영 요청
⇒ 중춘4가 등 파악된 상습 정체구간 9개소 개선 예정
- ④ 어린이보호구역 30km/h 등하교시간 외에는 탄력 조정 요청
⇒ 주간30km·야간50km 대덕초교(1개소)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검토

【Ⅳ. 교통안전 교육·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.】

- ① 방향지시등의 중요성, 우회전 일시정지 등 캠페인(현수막 등) 홍보 필요
⇒ 우회전 일시정지 등 캠페인(9회), 현수막(90개소), 전광판·모니터(28개소), SNS(12개), BIT(1,080개소) 게시 홍보 중
- ② 어른들 시선이 아닌 아이들 시선에 맞춘 '맞춤형 교통안전교육' 필요
⇒ 유치원, 초등학교 등 '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' (5월 기준 29회, 3,207명) 연중 추진, 어린이날 행사 등 홍보부스 운영(3개소, 4천여명)
- ③ 교육기관·각 언론사를 통해 보다 많은 교통안전 홍보 요청
⇒ TBN교통방송 업무협약(5.11) 및 언론사 교통안전 보도자료 수시 배포(5월 기준 19건) / 각 기관과의 협업,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(경로당 140개소, 2,100명/기타 25개소, 870여명)

②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(12건)

【Ⅰ.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】

- ①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주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진행 요청
⇒ 학기 초 중·고등학생 집중 예방 활동 추진(총 152개교 완료)
- ②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필요
⇒ 학부모 교육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 간담회 시 통보
- ③ 사이버공간에서의 은밀한 따돌림 빈번
⇒ 학폭교육과 병행하여 신종범죄(사이버폭력,도박) 예방 교육 추진 중
- ④ 학교폭력 관련 홍보활동 강화 요청
⇒ 캠페인 및 학원가 중심 심야 아웃리치 홍보 활동 추진 중
- ⑤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시 익명조사 요청
⇒ 익명조사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 간담회 시 통보

【Ⅱ.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습니다.】

- ① 가해자 재발방지 차원의 강도 높은 교육 필요
⇒ 자치단체에 가해자(알콜중독 등) 교정치료비 지원(4,500만원) 요청
- ② 사회적 약자 범죄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 요청
⇒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전담부서 간담회 시 강조하여 엄정한 처벌 공감대 형성(4.25.)
- ③ 피해자 신속 분리, 스마트워치 최우선 지급 요청
⇒ 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지급율 91.8%로 피해자 적극적인 안전조치 시행

【Ⅲ. 사회적 약자 대상 관심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였습니다.】

- ① 노인학대 범죄예방 등 활동 강화 필요
⇒ 경로당 방문 노인 대상, 대처요령(112신고 등)·예방활동 등 강화 추진
- ② 유관기관들과 소통·협업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필요
⇒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기관·단체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 협업방안 논의 중

【Ⅳ.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.】

- ①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진행사항을 잘 설명해주고 신속한 처리 요청
⇒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시 진행사항 안내 및 신속처리 등 재강조(5.22.)
- ② 동성간 성추행·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(‘장난인 것 같다’며 무마하려 함)
⇒ 경찰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시행(5.15.)

③ 생활안전(범죄예방) 분야(12개)

【Ⅰ. 범죄예방 환경·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.】

- ① 원룸·다세대주택 지역 태양광에너지 LED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조도 개선 요청
 - ⇒ 태양광에너지 LED 가로등은 전기사용이 불가능한 하천변 등에 설치 / 원룸·다세대 주택 지역 가로등은 대전시 조도 개선(12.4억)으로 추진 중
 - ※ 배재대 후문, 탄방동 등 원룸·다세대 주택지역 LED 조명으로 11월중 교체 예정
- ② 지하보도 조도 상향 요청(한밭수목원 연결 지하통로 등)
 - ⇒ 한밭수목원 연결 지하통로(평송 지하보도) 등 16개소 지하보도 LED 조명으로 교체
- ③ 공원, 유흥가 등 방범시설 확충 필요(대흥동 공원 일대, 봉명동 우산거리 로고젝터 설치 등)
 - ⇒ 대흥동 공원(1964년 조성)은 소규모 공원으로 CCTV(1대), 보안등(10개), 화장실 內 비상벨 등 설치되어 있으나 중구청 상대로 범죄예방 관련 CCTV 1대(대흥1동 경로당 주변) 설치 요구
 - ⇒ 봉명동 우산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CCTV(2대), 보안등(14개) 등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성구청 상대로 범죄예방 관련 로고젝터 1대(‘먹성집’ 가게 앞) 설치 요구

【Ⅱ. 청소년 비행장소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.】

- ① 청소년들 심야 공원, 학교, 아파트 단지 등 흡연으로 순찰 강화 요청
 - ⇒ 지역안전순찰 장소로 선정, 테마순찰(공원·공폐가 등 청소년 비행지역 순찰) 시행

【Ⅲ. 주민이 불안해 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.】

- ① 원룸촌·대학가·유흥가 및 공원 등 우범지역 일대 순찰 강화 요청
 - ⇒ Pre-CAS(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)상 고위험지역(1~3등급)과 순찰 중 주민이 체감하는 불안지역을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하여 순찰 시행
 - ※ 용전동 터미널, 월평동 선사유적지, 가오동 학원가·먹자골목, 관저동 마치광장, 중리시장 등을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하여 순찰 중
 - ※ 관내별 미지정된 학원가, 공원, 공사장 등은 추가적으로 탄력순찰 지정하여 운영 예정
- ② 도보순찰 강화, 순찰차 경광등 켜고 거점근무 등 경찰이 가까이 있다는 인식 제고
 - ⇒ 도보순찰의 일환으로 순찰 중 주민을 만나 ‘치안의견 엽서’를 받는 ‘주민접촉순찰’과 Pre-CAS(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)상 고위험지역에서 거점순찰 추진
 - ※ 거점순찰시 순찰차 경광등 켜고 근무 중(5.16. 시행)

【Ⅳ. 시민참여 합동순찰 및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였습니다.】

- ① 대학가·유흥가·재개발지역 등 합동 순찰 요청
 - ⇒ 자율방범대, 대학생 등 시민들과 합동 순찰 실시 중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 예정
- ②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위원회(가칭) 설립, 치안정책 의견수렴 활성화 제언

⇒ 대전경찰청 內 모든 지구대·파출소(총 31개)별 공동치안 네트워크 구성(자율방범대, 통장, 주민자치위원장, 아파트 입주자 대표,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)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, 참석자들로부터 지역 치안문제를 청취하고 의견 반영 중

※ '23년 현재 총 64회 개최, 시설물 개선, 순찰강화 등 68건의 치안문제 해결

⇒ 참석희망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치안시책에 관해 언제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경찰서·대전경찰청·지자체 등 협조를 통해 의견을 반영·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

【V.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.】

① 커뮤니티 매핑 활용, 주민이 취약지역 올리면 순찰코스 지정·순찰 제언

⇒ '순찰 신문고' 모바일앱, 지역관서 방문,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순찰시간·장소를 접수받아 순찰 시행 중

② 24시간 운영 점포(편의점) 지도화하여 순찰 및 범죄예방에 활용 제언

⇒ 24시간 운영점포(편의점 등)는 Pre-CAS(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) 지도에 표시 되어 있어, 순찰 및 범죄예방에 활용 중

【VI. 기초질서 단속,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.】

① 술집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, 침뱉는 행위, 담배꽂초 등 무법천지로 단속 요청

⇒ 국민신문고 및 112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며, 주요 취약지역(둔산동, 봉명동 등 유흥가 주변)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점검·단속 및 홍보 예정

② 방송매체 등 활용, 범죄예방 홍보활동 필요

⇒ 주민접촉 순찰 중 시민 대상 범죄예방 홍보물(부채) 제작·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 중